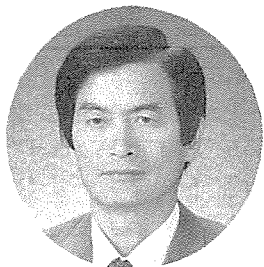


농업과 개척정신



金 茂 男

중부대학교수 · 대관령

제일목장대표

1980년 1월 목장견학을 위해서 뉴질랜드의 몇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다.

‘트라이프’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의 집은 북쪽 섬 왕가누이읍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이었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는 그 집은 저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릴만큼 넓고도 무게가 있어 보였으며, 얼른 보아서 중세기 어느 성주의 집처럼 느껴졌다.

넓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그의 조상들 초상화를 한줄로 걸어 놓았는데 높은 관직과 학문적 업적을 이룬 분들, 그 면면으로 보아서 전통있는 집안이란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 4형제가 있었는데 각각 의사, 교수, 판사, 그리고 목장주가 되어서

독립해 나가고 지금은 그집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얼른보아 70세는 넘어 보이고 지팡이를 짚고도 겨우 걸을 수 있는 이 할아버지는 자기집 앞에 아직 개간이 되지않은 넓은 땅을 개간하겠다는 계획을 나에게 설명했다.

“아들이 모두 독립해 나갔는데 누가 이것을 개간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잘 견지도 못하는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개간하겠다고 대답했다. 나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를 돌보는 일도 힘에 겨울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을 개간하는 일은 한창 나이의 젊은 사람들도 얼른 엄두를 내기 어려울 만큼

힘하고 면적도 넓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개간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목장을 경영하는 그의 막내아들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얘기중에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우리나라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국토는 뉴질랜드의 1/3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인데도 인구는 뉴질랜드의 12배가 넘는 3천7백만(’80년 당시)이나 된다. 지하자원이나 농산물도 별로 없어서 결국 섬유, 전자, 기계등의 각종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수출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나는 뉴질랜드의 앞선 축산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나의 이 얘기끝에, 그는 전혀 예상 밖의 당돌한 질문을 해왔다. 즉 자기의 조상들은 영토가 좁은 조국(영국)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개척을 해 왔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당시 비어있던 태평양상의 많은 섬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좁은 반도에서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당시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했기에 5천년 역사를 통해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런 영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글쎄, 예상치 않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설명이면 무난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좀 더 솔직하게 우리의 개척정신이 부족했던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끝없는 개척정신-이것은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번영을 약속해주는 가장 가치있는 정신적 지주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너무나 짙어져진 구습에 얽매어 새로운 것과의 만남을 두려워한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개척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몇주간의 뉴질랜드목장 견학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개척정신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국토는 대부분 매우 가파른 경사지였고 강우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았다. 인건비는 당시 우리보다 6배나 비쌌고 국공유지 토지임대료는 10배이상 비쌌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시 쇠고기와 우유를 우리나라 농민들보다 1/5밖에 안되는 싼 값에 생산하고 있었으며,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무려 40%나 내고 있었다.

그들의 축산업이 발달된 것은 결코 자연조건 때문이 아니었다. 끝없는 개척정신-그 결과 얻어지는 폭넓은 지식과 적절한 기술의 적용이 그들의 축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올린 것이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은 우수한 축산국의 하나인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축산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던 1984년, 나는 스위스의 한 젖소 목장에서 목장실습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스위스의 축산현황을 살펴보게 되었다.

스위스는 평야지가 거의 없는 산악 국가이고, 좁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며, 공업이 발달된 나라였다.

그래서 축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계화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알프스의 혹독하고 번덕스러운 기후는 여러 면에서 축산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국민소득 3만불의 이 나라는 인부를 구할수도 없었다.

주변여건과 자연조건으로 보아서 스위스농업은 벌써 몰락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스위스는 여전히 세계적인 축산국으로 남아 있으며 축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목소리들이 높다. 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축산업이 미국을 비롯한 축산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기엔 힘이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농민, 정부, 언론등의 견해는 지나친 패배감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나 스위스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축산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연조건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축적하며, 그리고 닦쳐오는 난관들을 돌파하려는 개척정신을 키우는 일이 절실히 요청될 뿐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개척한 나의 작은 목장을 나는 더욱 굳세게 지키고 더욱 소중하게 가꿔 갈 것이다.